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9호 【루게 제24817호】 주제104(2015)년 2월 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륭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1년 3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돌아보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어온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주신 유훈관찰정형을 알아보고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어리여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새로 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1947년 7월 우리 나라의 첫 함선수리기지로 조직된 공장의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961년 10월 3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자그



활환경을 마련해주어야 로동이 그대로 흥겨운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내외부를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히 때벗어시키며 문화후생시설들과 과학기술지식보급실도 손색없이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나오는 공업용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화시설들도 과학기술적요구에 부합되게 더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해군무력강화발전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 주겠으니 공장을 우리나라 선박수리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과 해당 부문에서 당장건 70대를 맞으며 공장을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각종 전투함선들의 수리 및 현대화와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10월3일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마한 함선수리조합이 그 어떤 전투함선들도 능히 수리할수 있는 공장으로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해에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함대들에는 그 어떤 전투함선들도 짧은 기간에 수리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을 떠나 공장의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은 자기 일터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안고 수령님들의 업적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관수리작업반, 약전작업반, 가공작업반, 시운전장, 도크, 부두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함선수리정형과 종업원들의 로동조건, 생활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명도명에 최근년간 현대적으로 변모된 공장, 기업소들과 대비해보면 공장의

설비들과 생산 및 기술공정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많이 뒤떨어졌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맡고있는 함선수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 함선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현대화하자면 공장의 특성에 맞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으며 도크와 부두를 비롯한 구조물들도 함선수리를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



불멸의 정규무력건설업적 백승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



↑ 조선인민군 열병대오를 사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2월
←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 졸업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7(1948)년 10월



조선항공협회 신의주지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1월



평양학원 개원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2월



평양학원 교직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2월



내무성중앙보안간부학교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해군무력창설을 준비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사격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10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12월



인민군대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8(1949)년 5월



제2중앙정치학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8(1949)년 7월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성세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대, 돌격대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을 정규적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7돐을 맞이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건설에서 1932년 4월 25일과 함께 1948년 2월 8일은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날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무력건설의 새로운 전례를 세우기 위하여 온 나라의 뜻깊은 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밑에 혁명무력이 자기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섬으로써 우리 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진취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 정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가 가장 숭고한 영웅과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과 혁명을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언대와 새기를 이어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오늘날 조국의 천리방성초소들과 창조와 건설의 중요전구에서 영웅적위용을 떨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을 감회없이 돌이켜보면서 회세의 선군혁명가인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의 그 복잡한 속에서나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령도하시며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혁명무력건설업적은 해방된 우리 나라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나라의 절반방을 장악하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달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로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규무력건설의 역사적업적을 빛나게 실현하신것은 주제적건군에 특기할 업적이다.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진도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당, 건군, 건군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셨다. 정규무력건설경험도 없고 현대군사학과 기술로 무장한 군사간부도 부족하였으며 일제에 의하여 다 파괴된 탁후한 경제와 텅 빈 금고만 물려받았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정규군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헌신과 애국의 선견성, 강철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실현하실수 있는 애국애족의 대업이었다.

1948년 2월 8일 열병식광장을 보 무당당히 행진해간 조선인민군은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로 꾸려졌으며 현대적군종, 병종에 다 갖추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나 규률면에서나 우수한 혁명군대였다. 갖 해방된 조선에서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혁명적정규무력을 건설하는데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이었다. 2월 8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능히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기 조국을 세계건설국들의 대렬에 올려세울수 있다는것은 온 세상에 파시던 민족사적패자의 날로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다.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제적건군건설사상과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에서는 조직원칙과 혁명적성격, 정치사상적품모와 군사기술적면모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조선혁명의 입부와 현대전쟁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밝혀주었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정규군간부양성기인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고 주제적건군사교육체계를 세우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신데도 잊지않고 우리 식의 군사규정과 교범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군사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군인들의 자각성을 높여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도록 하신데도 여과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건군사상과 령도는 우리 혁명무력이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정규군으로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여러 군종, 병종과 자립적군공품모 토대까지 다 갖춘 정규적무력였다. 이것이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면모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자각적사상과 령도에 힘입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건군사상과 령도를 따라가며 자랑스러운 면모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정규화됨에 따라 강화발전됨으로써 총대가 약한것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미국수반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늘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현대적정규무력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업적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업적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투철한 자주적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이다.
아버이수령님의 현대적정규무력건설업적이 세계건군사에 빛을 뿌리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의 무력건설에서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는것은 그것이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취물이기때문이다.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와 외세의존사상과의 치열한 대결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국의 원조가 없는 정규군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특별히 언중이며 중의의 온갖 쟁론과 외세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오셨다. 혁명적당과 인민정권이 있고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단련육성된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상한 건국열의가 있기에 얼마든지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신속히 건설할수 있다는것이 백두명장의 신념이고 배짱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치간부문제, 정규무력의 핵심부대를 조직하고 여러 군종, 병종부대를 편성하는 문제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현대건군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빈터에서 투쟁공군건설과 자립적군공품업건설이 다같이 추진되고 짧은 기간에 급속히 확대발전된 데는 없다. 이 세기적인 기적이 바로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최대로 분출시키신 건설적령장의 의하여 창조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시절부터 시작된 새형의 혁명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시한 2월의 장엄한 열병식은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무궁무진한 슬기와 힘에 대한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일찍이 10대의 어린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20대에 온 인류전군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형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30대에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시대적모험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시야말로 군사의 영재이시며 선군혁명의 영원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주제형의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독립을 위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혁명무력이 정규화됨에 따라 강화발전됨으로써 총대 약한것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미국수반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온갖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결사수호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운 혁명적무력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두만다시 외세의 통략물로, 망국노로 되지 않게 하려는 애국의 의지로 굳게 뚫린 강력한 무력은 모든 승리와 성과들이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희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고 항복에서 도장을 받아낸것은 우리 조국이 더는 약소국이 아니며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는것을 단호히 과시한 역사적사변이었다. 장장 60여년간 적들과의 전면전쟁에서나 총포성능에 대결전에서 리전전승을 떨쳐온 여기에 조선인민의 자랑스러운 행로가 있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존엄이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전쟁책동은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만능의 주제전법과 백승의 경험론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적수단과 방수단들을 갖춘 무전막강한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혁명무력이 정규화된 혁명군대로 강화발전됨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주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주력군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전위력량이고 일심단결의 핵심부대로써 부강 조국건설의 전진군을 열어나가는 돌격대였다.

장구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풍, 주력군으로서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치며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 전후에서, 고난의 행군에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갈피마다에는 인민군대의 선구자적위용이 굶없이 새겨져있다. 인민군대가 강했기에 우리 혁명이 백두의 혈통으로 꽃피고 이어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 고수할수 있었으며 이 땅에서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의 력사가 끊임없이 수놓아질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이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위업이 세상에 나래지고있는 것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대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제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제적건군업적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리잡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휴의 선군혁명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당당히 떨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다.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위력도 막강한 우리 혁명무력이야말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추켜들고오신 선군의 기치를 더욱 힘차게 휘날리며 당의 령도따라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건군위업 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계승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불멸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보이다.
우리는 해방후 그토록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규무력건설업적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업적이 깰어있는 단위를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의 군대, 대의 군대로서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꽃피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영원히 높이 받들어야 하며 금수산대양군을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며 당의 현명한 령도와 원만한 인민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기에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다.

나가는 위대한 선군명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군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진정한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위용 떨치고 전투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 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고 결사옹위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하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항방향으로만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하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항방향으로만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불멸의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뜻깊은 혁명적명절들이 겹친 올해에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하고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당의 부강조국건설수상을 받들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로서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 로동적위군과 붉은청년군 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천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진합동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당의 병정로선을 틀어쥐고 국방공업의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주의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주의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투쟁방식이다. 인민군대 지휘관들과 사회의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주의의 지휘를 따르고 당의 당면한 일꾼들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업적이 깰어있는 단위를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수령의 군대, 대의 군대로서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꽃피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영원히 높이 받들어야 하며 금수산대양군을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며 당의 현명한 령도와 원만한 인민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기에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7돐기념 인민무력부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7돐기념 인민무력부보고회가 7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제적혁명무력건설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2월 8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세계화 설배고있었다.

보고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대원수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폭속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항쟁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꾼들, 인민군장병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레를 승리의 해, 혁명적대투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여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67년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선포하신 주제37(1948)년 2월 8일은 주제21(1932)년 4월 25일과 함께 우리 혁명무력건설과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전승의 기적으로부터 세기

와 전대를 이어가며 자랑찬 승리만을 펼쳐온 우리 정규적혁명무력의 영광의 자욱자욱은 뜻깊은 이날과 하나같이 맞닿아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총성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정규무력을 건설해본 경험도, 토대를 없었던 우리 나라가 일제식민지 통치로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해방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규화된 혁명무력을 건설한것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기적이었다.

총대가 약한것에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는 당당한 자기의 정규군대를 가진 것의 높은 인민으로 되게 된것은 건국초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선견적명도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건군정규무력건설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에서도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으로 내세우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건당, 건군과 함께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항일의 전통을 계승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자적인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해방후의 어려운 난관을 떠들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한 시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의 방해와 압력을 자주적 신념과 배짱으로 단호히 쳐갈기시었던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규군대를 창설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

들은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주제형의 혁명무력,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한 빛과 슬로로 간직한 불멸의 혁명강군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총대강화를 새 조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속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해방은 되었으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국고까지 텅 빈 당시의 형편에서 군종, 병종, 전문병을 다 갖춘 현대적인 정규무력을 건설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자주독립국가의 존엄도, 새 사회건설의 슬로로 담보될수 있다는 철칙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정규무력건설에 최우선적인 힘을 쏟으셨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총대강화를 새 조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속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다.

해방후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시면서 군사교육과 전투훈련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해방직후 찾으면서 할 곳들이 많았지만 강선검이 앞서 평민길을 먼저 걸으시며 우리 나라 병기공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무장장비개선 사업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이나 다름없는 빈터에서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를 만만히 갖춘 정규적혁명무력이 건설될수 있었다.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자라난 우리의 혁명적정규무력은 주체의 건군업적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불휴의 로고와 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그날부터 백두산에서 조여매신 빨치산의 신념을 주실 사이도 없이 강력한 정규무력창설을 위하여 참으로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다.
검소한 점심식사마저도 잊고 먼지날리는 구내길과 참조성현안 산비탈길을 걸으시며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속에 수많은 군

사정서군부양성지들과 보안간부훈련소들이 조직되고 함공대, 수상보안대, 포병, 탱크병, 공병, 통신병을 비롯한 병종, 전문부대들이 꾸러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 조직된 군종, 병종부대들에게 우리 식의 군사규정과 교범, 부대지휘관지침법과 전법을 구현하도록 하시는 한편 각종 무장장비와 군수물자를 비롯하여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자립적건군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강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성과와 대하여 1948년 2월 8일 주제형의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위업이 세상에 나래지고있는 것도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대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제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독속에서 불멸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력사는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을 대를 이어 모시어 백전백승하여온 영광스러운 현대전으로 다 바꿔놓게 갖추어주시었다. 1960년 8월 25일 군위 서수 릉정수제105평크사대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세기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군명도의 전기간 후 혁명무력의 본성에 맞게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인민군대를 수령의

것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름길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전위대로로 장성강화되어 《후에불로 호산군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와의 끊임없는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력사와 전통을 꽃피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영원히 높이 받들어야 하며 금수산대양군을 결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며 당의 현명한 령도와 원만한 인민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기에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며 당의 현명한 령도와 원만한 인민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기에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다.



5 쪽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성스러운 군기의 펄럭임소리 - 노래 《조선인민군가》를 들으며

조선인민군가

1.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강철로 다져진 영광의 대오 김일성원수님의 붉은 전사로 사회주의 내 조국 지켜싸운다 (후렴) 나가자 조선인민군 일당백용맹을 떨치며 제국주의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자
2. 청춘도 생명도 모두다 바쳐 혁명에 충직한 승리의 대오 위대한 수령님이 령도하시는 당중앙을 목숨으로 지켜싸운다 (후렴)
3. 지나온 싸움의 발걸음마다 승리로 빛나는 불패의 대오 수령님이 부르시는 오직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리라 (후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 없는것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대로 닮은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본래이며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방식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빛나는 역사를 펼쳐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상징하고 승전의 기록과도 같은 군가명곡들이 적지 않게 아로새겨져있다. 그 노래들 가운데는 력사적인 2월 8일을 맞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편의 명곡이 있다. 그 명곡이 바로 새 조선의 건군사에 2월 8일이 금문자로 새겨진 그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인 주제 57(1968)년에 태어난 노래 《조선인민군가》이다.

이 작품은 우리 건군사에 특기할 사변과 더불어 창작된 기념비적인 명곡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15년이 되는 이해의 1월 영웅한 인민군대원들은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령하에 불법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천하무적의 인민군대의 위용과 전투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하고 세계를 뒤흔들게 하였다.

당황망조한 미제는 힘으로 배와 승무원들을 찾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항공모함을 원상상태에 들이민다, 일본본토에 있는 미항공대를 모조리 동원한다고 하면서 정세를 전쟁전경으로 몰아갔다. 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이후 가장 첨예한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대결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2월 8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다》라는 유명한 연설로 행성을 뒤흔들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또 한편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아래 조국해방전쟁 시기보다 몇십몇배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의 충천한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조국수호의 열의는 활활산처럼 끓어번졌다.

백두산장군들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세계의 면전에서 첩천지원수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한 조선인민군은 핵항공포함보다 더 요란한것을 다 끌고온대도 단애에 죽량쳐버릴 열의의 의지와 기개를 노래 《조선인민군가》로 힘있게 터져왔다.

더우기 이 노래는 당시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반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완성된것으로 하여 사상예술적으로나 력사적으로, 시대적가치에 있어서 더욱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이 명곡에 음악을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간주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음악적치의 실력이 훌륭히 구현되어있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외교적공세로 《푸에블로》호사건을 저들의 승리로 결속하려고 온 한해 무전애를 썼지만 결국 노래 《조선인민군가》를 높이 부르는 백두산혁명강군앞에 또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노래 《조선인민군가》는 오만한 미제국주의를 또 다시 타승한 조선인민군의 승전가로 력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노래 《조선인민군가》는 그 력사적의로도 유명할뿐아니라 백두밀림에서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백두산혁명강군의 고귀한 전통과 지향,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진면모와 무적의 힘의 원천, 선군조선의 혁명군가에 고유한 사상예술적특성을 훌륭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군가의 본보기작품, 대표적작품으로 공인되어있다.

명곡의 첫 구절인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는 조선인민군이 계승한 전통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이 계승한 전통은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며 강대한 일제를 쳐물리친 승리의 전통이었다. 이 위대한 전통이 있었기에 지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법한 로동자, 농민 그리고 청년들이 혁명의 군복을 입은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용감히 맞서싸울수 있었으며 승리의 존엄을 지닐수 있게 되었다.

노래는 조선인민군의 승리의 전통이 얼마나 값비싼것이며 영광스러운것인가를 혁명적투쟁의가 끊이지는 형상을 통하여 밝힘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과 군가로서의 면모를 잘 살리고있다. 《청춘도 생명도 모두다 바쳐 혁명에 충직한 승리의 대오》, 《지나온 싸움의 발걸음마다 승리로 빛나는 불패의 대오》에 는 무기만등론을 떠들던 미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넣게 한 인민군대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이 거울처럼 비껴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가 서사시적화 폭파도 같이 펼쳐지고있다.

인민군대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력사에 해이 있다. 그 진리가 《수령님이 부르시는 오직 한길로》라는 명곡의 구절에 담겨져있다. 수령의 부름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것은 우리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대원들의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였으며 삶의 영광이었다.

항일혁명선열들과 전희의 영웅전사들은 남보다 뛰어난 교육을 받고 혁명의 총대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고 헤방된 내 나라의 주인으로 행복을 누려가는 과정에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대원들은 수령의 령도로 곧 승리고 영광이며 조선인민군의 생명이란 철리를 뼈에 새기었다. 천금주도 살수 없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철리가 있어 죽어도 살아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단을 헤쳐 세워이기고야 마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창조될수 있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부름높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게 한 1950년대의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발휘될수 있었었던것이다.

위대한 철리, 위대한 전통이 있어 혁명무력이 창건된 때로부터 수십년이 흐른 후에도 《사회주의 내 조국 지켜싸운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지켜싸운다》, 《제국주의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자》와 같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본래가 살아높이는 신념과 맹세의 글발이 태어나 천만심장을 뜨겁게 불태워줄수 있는것이다. 노래 《조선인민군가》는 혁명군가의 풍

격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우리 군가예술의 걸작품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절해고도에 떨어진다고 하여도 혁명적신념을 굳게 다져주고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 군가를 증대, 편대, 사단이 부르면 강적도 단애에 쳐부수고 하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게 하는 무수한 힘을 폭발시켜준다. 하여 인민군대원들은 오늘날도 혼련의 낮과 밤을 이 노래와 함께 유희와 맘으로 수놓아가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 노래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령장의 신념과 의지를 버려주지는 군가로 새겨안으셨다. 1970년대 중엽 관문점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조선인민군가》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어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시었다.

노래에 편용되어있는 제국주의침략자를 모조리 때려부시고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결연한 반제민주적투쟁과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은 오늘날 백두산혁명강군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더욱 배배해지고있다.

노래 《조선인민군가》에 담겨진 백두산혁명강군의 빛나는 전통과 백승의 기상을 인민군대원들에게 더 깊이 생활적으로 심어주시기 위해 그도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노래 《7. 27행진곡》, 《승리의 대를 이어》, 《근위부대장가》를 비롯한 노래들이 태어나 인민군대원들의 전투정신과 용맹을 하늘에 닿고있다.

지금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어찌보려고 원수들이 갖은 발악을 하고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르시는 오직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신념과 의지는 백두의 맑은 백두산군진다. 뜻깊은 2월 8일을 맞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장병들은 승리의 신심만져 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차 수

3 면 에서 계속

그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는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수령님의 군대, 장군님의 군대입니다. 인민군

대는 수령님의 군대, 장군님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인민군대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헌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며 현직지도단위들이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적령명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충정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김정은제일천위대, 제일결사대가 되어야 한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눈속에 묻혀도 푸른 기상을 떨치는 소나무처럼, 부시저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강직하고 건실한 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에는 오직 《알았습니다.》라하는 한마디 대답밖에 모르며 시제의 초침과 같이 가장 정확하게 즉시 집행하고 즉시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대오안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빨치산시훈련영을 백두의 칼바람마냥 세차게 일으켜 당의 5대훈련방침제시 40훈과 4대훈련원칙제시 25훈이 되는 율예에 훈련의 질을 높여나서 전변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 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모두가 새해의 첫 명중포성을 울린 최전연부대의 군위병들처럼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가 되어야 한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무기, 전투기술기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경사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것이다.

전군에 강철같은 군기를 세우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하여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멎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전모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

으켜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드라파 깃달아있는 병사들의 정돈고함마음과 고향집으로 꾸러나가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세토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당이 부르는 제일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불

패의 위력과 혁명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펼쳐야 할것이다.

오중흥7련대청조정위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전군가를 높이 부르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이 빛나게 완수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은 필승불패이다



